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교육 — 한국의 차 문화를 중심으로

박경자(조선대학교)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의 차 문화를 한국어 교육과 연계하여 문화교육과 언어교육으로 연계하여 교육적가치가 있음을 제고하고자 한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직접 차를 빚어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정서 안정과 친화를 다지는 한편 생생한 한국의 문화와 언어문화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차 문화는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살아있는 텍스트이자 주제, 수단, 보조 자료로 채택되고 응용된다.

심신을 안정시키고 기운을 북돋우는 차의 효능은 오랜 세월을 걸쳐 동서가 두루 공유해 왔다. 특히 정신 건강에 좋은 차는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정화시키고, 혼탁한 정신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양가적 효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옛사람들은 차를 혼자서 마실 때는 잡념과 번뇌를 제거하여 정신을 바로 잡아 왔다. 둘이서 혹은 여럿이 마실 때는 화합을 다지고 생산적인 의사소통을 이루었다.

한국에서 외국인 학습자는 언어, 문화, 생활환경, 교우관계, 생계 대책 등 다방면에서 정서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들이 직접 차를 빚어 함께 나누며 익히게 될 차 문화 교육은 현장 체험학습과 같이 살아있는 문화 교육에 해당된다.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장르로 기능할 뿐 아니라 교사와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해 문화의 실상을 직접 시연하는 실용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의 차 문화를 한국문화교육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해 외국인 학습자 한국문화교육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고, 외국인 학습자들은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적 여유 속에서 동료와의 화합을 다지고 자연스럽게 원활한 의사소통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의 차 문화를 이해하고 차를 상용함으로써 정서 순화뿐 아니라 한국의 우수한 정신문화를 자국에 전파해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한국문화, 한국문화 교육, 한국의 차 문화, 외국인 학습자, 다도 교육

I. 서론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위상이 신장됨에 따라 국내외에 걸쳐 한국어 교육이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교육의 양적인 면에서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겪으며 학습 목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결혼이주 학습자·직업목적 학습자·학문 목적 학습자 등, 특수목적 학습자가 새로운 학습 수요층으로 대두되고 있다.¹⁾ 이에 따라 한국문화교육을 위한 다양한 주제와 교수법이 한국어 교수요목과 교과과정의 지평을 넓히며 창의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 추세에 맞추어 본 연구는 차 문화를 한국문화교육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는 크게 일상의 문화와 전통 문화로 나눌 수 있는데 차 문화는 일상 기호 문화와 정신문화의 외연과 내면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²⁾ 아울러 한국문화교육뿐 아니라 한국어교육 차원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직접 차를 빚어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한국의 문화를 섭렵하고 한국어도 익히는 현장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차 문화는 한국문화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살아있는 텍스트이자 주제, 수단, 보조 자료로 응용된다. 이처럼 차의 범상치 않은 기능과 차 문화의 교육적 가치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무수한 스님과 선비들이 차를 활용해 고도의 정신문화를 일구며, 수행과 학문에 정진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인들이 습관적으로 애용하는 기호식품으로 술과 커피, 차를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술은 건강과 행실 면에서 후유증과 부작용이 염려되는

1) 김정숙(2019),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 p.33.

2) 이 부분에 대해 박경자는 「韓國 茶道에 內在된 中庸의 實踐性 研究」 논문에서 “예부터 차는 마음을 바로잡고 이웃과의 화합을 이루는데 사용한 기호음료였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에서는 차를 통해 정신을 가다듬고 이웃과의 격조 있는 소통을 이루는 독특한 飲茶法이 발달했다. 이 중 한국에서는 중국 禪家의 茶道를 자연스럽게 응용한 한국식 茶道를 활용해 왔다”고 말한다. 박경자(2018), 「韓國 茶道에 內在된 中庸의 實踐性 研究」, 동북아문화연구 제 57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69.

데 비해 차와 커피는 부담 없이 음용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차는 아늑한 찻집 혹은 가정이나 조용한 공간에서 차와 더불어 고요와 한가로움을 음미하는 데서 그 오묘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차는 예부터 심신의 건강을 돕는 약용식물로 일컬어져 왔다.³⁾ 차 문화에는 동양 사상과 윤리를 통섭적으로 융합한 한국의 정신문화가 깃들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신문화를 고찰하는 데 차 문화는 고차원의 단서를 제공한다. 차는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정화시키는 한편, 흥미한 정신을 일깨우는 각성제 역할을 하는 양가적 효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옛사람들은 차를 혼자서 마실 때는 잡념과 번뇌를 제거하고 정신을 다잡는 데 활용해 왔다. 둘이서 혹은 여럿이 마실 때는 화합을 다지고 생산적인 의사소통을 이루어 왔다. 그러기에 다담(茶談)이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다. 다담은 술자리에서의 격의 없는 대화와는 달리, 일정한 격조를 갖추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깊이 있는 담소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인격 수양이나 학문 연마에 도움이 된다. 상대에 대한 배려, 겸손과 성실을 바탕으로 나누는 다담 속에는 품격 있는 언어와 성찰, 절제된 사고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격조 있는 언어, 사고, 정신문화적 교감이 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통문화에는 고유의 언어가 숨 쉬고 있다.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 속에 담겨 있는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차 문화 속에는 민족의 혼과 정서를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와 정제된 언어가 응축되어 있다.

차 문화는 일상의 기호문화로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차원 높은 한국 전통문화의 일부를 이루는 만큼 한국문화교육에 있어서 그 가치와 의미가 무궁하다고 볼 수 있다. 차 문화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는 시간적 여유를 즐기며 격조 높은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다.

또한 차 문화 속에 내재된 언어문화를 통해 한국어의 질과 격을 높일 수 있다. 더욱이 외국인 학습자가 직접 시음 현장에 참여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

3) 육우의 『다경(多經)』에 인용된 신농씨(神農氏)의 『식경(食經)』에는 ‘차를 오래 마시면 힘이 솟고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적혀 있다.

김명배 역저(2007), 중국의 다도, 명문당, p.21.

하는 주체적 학습이어서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또한 차를 음용하며 학습자의 정신 안정과 의사소통, 정서적 교감을 이루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심리적 압박이 따르는 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특수 목적 학습자에게는 정신건강을 위한 차의 실효적 기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 들어 한국문화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는 다양한 교과 과정과 교수요목이 개발되거나 창의적으로 응용되고 있다. 따라서 차 문화를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의 일부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본 논고에서는 한국 차 문화의 가치와 한국문화교육의 자료로써 의미를 찾아내고 가능성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이를 위해서는 차 문화와 그 적용에 따른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II. 차의 특성과 문화적 가치

1. 한국 차 문화의 정신문화적 가치

차는 일상적 기호음료이면서도 특별한 건강식품으로 분류된다. 차는 강장제로 혈액 순환을 돕고 근육 및 신경의 작용을 원활하게 한다. 녹차에 함유된 플라본 성분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 동맥경화증이나 뇌졸중을 예방한다. 또한 체내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이뇨작용을 돕는다.⁴⁾

4) 차는 전 세계에 걸쳐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의 건강에도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국의 동의보감에서 차의 효능에 대해 기운을 내리게 하고, 소화를 도와 머리와 눈을 맑게 하고, 해독 작용을 하며, 숙취에 도움을 주고, 당뇨병에 좋다고 밝히고 있다. 전남대 박근형 교수는 차의 효능으로 항암효과, 노화억제, 숙취제거, 성인병 예방, 피로회복, 정신적 안정, 중금속과 나코틴 해독, 변비치료, 세균감염 억제, 충치예방, 체질산성화 예방, 비만방지, 콜레스테롤 저하 등을 꼽고 있다.

조기정·유동훈(2015) 「차문화의 범주와 가치, 『韓國茶文化』 제6집, 韓國茶

특히 정신을 맑게 하고 안정시키는 한편 졸음을 쫓는 각성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예부터 선가의 수행을 돕는 신령스런 음료⁵⁾로 애용되어 왔다.

차의 약효에 대해서는 동양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서양 차의 전성기이던 빅토리아여왕 시대의 차 문화를 살펴보면 영국의 의사들도 차의 신비한 효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차를 도입한 후 사찰과 다원, 민가에서 꾸준히 심신의 건강을 위한 보약으로 음용해 왔다. 일찍이 차의 약리적 효능과 가치에 대해 꾸준한 경험을 통해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고려시대의 수많은 다시(茶詩), 본초강목과 동의보감⁷⁾, 다산의 결명시⁸⁾, 그리고 남도지방 민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차의 전성기이던 고려시대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든 조선 후기의 다산, 초의, 혜장⁹⁾, 주사, 근현대의 허백련¹⁰⁾, 법정 스님¹¹⁾ 등이 밝힌

文化學會, p.34.

- 5) 차 전문 서적인 『中國茶』의 저자 리우통은 “차는 깊은 산에서 자라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정수를 흡수했고 점차 사람의 손길을 거치며 인류의 지혜까지 녹아들었다”고 한다.

리우통 저(2008), 홍혜울 역, 『中國茶』, 대가, p.148.

- 6) 차의 효능에 대해 동시대의 의사들은 차가 안전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많은 의학적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Roy Porter는 이 시기 전반에 걸쳐 차의 의학적 사용과 함께 사회적 소비에 대해 시사한다. Thomas Short는 1750년 다양한 차가 분명한 의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약품으로서의 차의 장점에 대해 극찬하였다. 예를 들면 green tea의 경우 피를 맑게 하고 두통을 치료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유우준(2012), 「18세기 영국의 차 산업과 사회 변화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20.

- 7)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에서도 차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이롭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 8) 다산이 혜장스님에게 차를 보내 줄 것을 부탁한 시에는 차가 지닌 효능에 대한 믿음이 잘 나타나 있다.
- 9) 다산초당과 이웃한 백련사의 선승으로 다산과 차를 즐겨 마시며 학문과 우의를 나누었다.
- 10) 허백련은 붓을 들기 전이면 의식을 치르듯 정성껏 차를 법제했다. 고요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마신 차는 심신을 청정하게 했고, 여기에서 산수화의 진경이 탄

차에 대한 관심과 예찬은 범상치 않은 차의 효능을 실감케 한다. 이처럼 차가 지닌 정신건강 기능에 대한 지식은 다도와 함께 한국의 차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식물에서 영적인 기운을 감지하고 심신을 아우르는 건강 가치를 부여한 지혜 속에 한국인의 차원 높은 친자연적 정신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범우주적 동질의 존재임을 의미하는 동양사상의 진수이기도 하다.

한국의 차 문화는 크게 일상적 차 문화와 전통적 차 문화로 나눌 수 있다. 커피처럼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 경우는 일상적 차 문화에 해당한다. 집에서 손님을 맞을 때 식후에 곁들이거나 식사 대신 차를 대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때의 차는 단순한 기호음료로 인식되며 전통차인 녹차나 홍차뿐 아니라 꽃차나 허브차 등 유사한 차 (차 잎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들도 포함된다.

한편 차 잎만을 재료로 하는 전통적 차문화는 다도(茶道)에서 기원한 법제와 행다(行茶)¹²⁾, 음다법(飲茶法)을 준수하는 고유의 형태를 가리키는데 정신문화적 요소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¹³⁾ 이는 한국의 사상, 정신, 정서가 응축되어 있는 본격적인 한국 고유의 차 문화를 의미하며, 차와 차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대변한다. 이를테면 차에게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고 이를 자기발전과 격조 높은 화합 분위기 조성의 핵심기제로 내재화하는 것이다.

차는 혼자 마실 때는 마음의 안정과 각성을 선물하고,¹⁴⁾ 상대와 함께

생했다. 그의 제도와 법제는 수행자가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경우처럼 엄숙했다. 그러나 차를 마실 때는 성실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마시기를 권할 뿐 엄격한 격식을 차리지 않았다.

정은희(2015). 『한국과 영국의 차 문화 연구』, 학연문화사, p.27.

11) 차를 손수 빚어 즐겨 마셨으며 차에 관한 글을 많이 남긴다.

12) 차를 끓여서 접대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말하고 행다례라고도 한다.

13) 허백련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 바른 마음으로 차를 마시고 바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다도라고 했다. 다도를 수행자가 도에 이르는 길과 같이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종교적 수행에 근원을 둔 한국의 다도가 점차 사회화되면서도 그 본류를 잃지 않고 정신 수양과 인격 단련의 일환으로 추구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14) 홀로 차를 마시면서 맑고 고요하고 한적함이 우리 삶에 어떤 몫을 차지하는가

마실 때는 상호 신뢰를 쌓고, 진지한 소통과 교감을 나누는 교두보 혹은 보조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¹⁵⁾ 일찍이 수행승이나 선비들은 차가 지닌 특이한 기능에 주목해 음다의 목적을 정신건강과 정신수련에 두고 고차원의 정신문화를 추구해 왔다. 이 부분은 선승들이 선을 행할 때 사용하는 화두와 깨달음의 오묘한 진리를 묘사하는 선시에 내밀하게 함축되어 있다. 아울러 고려와 조선시대의 승려와 선비들이 남긴 다수의 다시(茶詩)에서도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한국 차의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초의선사는 다도의 내재적 가치를 중용의 중정에서 찾으려, 차의 보급과 차 문화의 실용화를 강조했다.¹⁶⁾

이처럼 처음 차가 도입된 삼국시대 이후, 대부분의 승려와 선비들은 차를 즐겨 마시며 정서 순화와 심신의 정화, 정신의 안정을 꾀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길러왔다.¹⁷⁾ 또 차를 손수 빚어 친지나 함께 나누며 겸손과 성실을 기본자세로 한 청명하고 수준 높은 다담을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인격 단련과 학문의 연마를 꾀했다. 그 전통은 전문가적 수준을 지켜가는 차 애호가들, 전통적 차 문화와 차의 법제 기법을 전수해 온 다원의 명인 등에게서 재확인할 수 있다.

2. 차 문화 속에 깃든 한국의 전통 예절

2.1. 차례

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살이이기 때문에 맑고 고요하고 한적한 삶의 여백이 필요하다. 이런 여백을 통해서 시들해지기 쉬운 일상을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다.

법정스님(2001), 『텃빈 충만』, 샘터, p.59.

- 15) 당나라의 석학 배문은 “차는 본성이 맑고 맛이 좋으며 그 효용은 번뇌를 씻어내고, 화합을 이루는 데 이롭다 100가지 물건을 함께 섞어두어도 혼동되지 않을 만큼 홀로 뛰어나다” 고 차의 청정과 화합적 특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공귀옥(2012), 「차 생활이 청소년의 심리변화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6.

- 16) 임종욱 (2015), 「조선 후기 茶道의 중흥조, 초의 스님의 다도사적 위치」, 송광사 학술대회 논문, p.65.

- 17) 석용운(2000), 『한국다예』, 도서출판 초의, p. 103.

삼국시대에 전해진 차는 문헌상으로 그 도입 사실이 최초로 기록된 통일신라¹⁸⁾를 거쳐 불교가 성행하던 고려시대에는 일상적으로 보편화된 차 문화를 형성하기에 이른다.¹⁹⁾ 그래서 관혼상제 시에도 차를 끓여 올렸다²⁰⁾. 그런데 차츰 차 문화가 화려하고 번거로워진데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국가 시책이 불교 중심에서 유학 중심으로 바뀌면서 가례에도 사찰에서 즐기던 차 대신 술을 사용하기에 이른다.²¹⁾ 이를테면 출가승 위주로 수행에 사용되던 신성한 차를 대신해 선비들의 세속적 풍류와 사교의 매개물이던 술로 일상화한 데 따른 시류의 변화였다.

그러나 가례를 차례라고 부르던 습관은 그대로 남아서 현재까지도 제사를 ‘차례 지낸다’고 하며 제사상을 차례상으로 일컫기도 한다. 이처럼 차례는 본래 가례를 지낼 때 차를 끓여 올리는 예식이었으나 지금은 제사를 이르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18) 『삼국사기』 제10편을 보면, "흥덕왕이 828년 12월 사신을 당으로 파견해 조공하니 당 문종은 사신을 인덕전으로 불러들여 연회를 베풀었다. 이때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는 대령이 차 종자를 가져오자 왕은 이를 지리산에 심게 했다. 차는 이미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성하였다"라고 한 것이 우리나라에 차가 전래된 과정을 기술한 첫 번째 기록이다.

정병만(2012), 『다시 보는 차 문화』, 푸른 길, p.12.

19) 고려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차례(茶禮)는 바로 팔관회(八關會)다. 팔관회의 차례의식은 엄숙했고 화려했을 뿐만 아니라 격식이 있었다. 왕은 차를 마시면서 찻자리를 한 대중들과 음악을 들으며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즐긴다. 팔관회는 시립(侍立)한 군인들과 악관들에게 과일과 술을 전하면 끝난다.

여연(2006),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 현암사, pp.89-90.

20) 안정목이 쓴 <잡동산이(雜同散異)>에 혼례 때의 차례의식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례와 주인이 결혼의식 전에 차를 조상의 사당에서 마셨던 풍습은 차의 향기처럼 맑고 차의 빛깔처럼 아름다운 정결을 지키며 차의 신선한 맛처럼 조상의 가풍법도를 이어가겠다는 가문의 서약 같은 것이다.

여연스님, 위의 책, p.114-115.

21) 조선 전기에는 왕실의 제사나 상례 때 차를 더러 쓰는 기록이 보인다. 성종 5년(1474년) 때의 기록에는 “왕이 예조에 전하기를 봉선전(奉先殿)의 대소제사에 술 대신 차를 쓰라”고 했으며, 왕과 왕후의 기제사 때나 묘제사 혹은 화다례(畵茶禮) 때 주로 차탕을 올렸다.

여연, 위의 책, p.104

2.2. 접빈 다례

접빈 다례하면 주로 조정에서 외국의 사신을 맞을 때 행하는 의례를 말하며 이때는 까다로운 격식이 따른다. 한편, 평소 일반 가정에서 손님을 맞아 차를 대접하며 담소를 나누는 경우 역시 접빈 다례에 속한다. 지금도 손님을 맞이할 때면 술이나 커피 대신 차를 대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 사회에서 손님을 접대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차였다. 허물없이 대작하기에는 차보다 술이 편할 수 있다. 반면 술을 마시지 못하거나 즐겨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뿐더러 자칫 도가 지나쳐 실수를 범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그러나 차는 술과 달리 누구나 부담 없이 필요에 따라 목을 축일 수 있다. 또 커피는 대부분 한 잔으로 마무리 되지만 차는 여러 잔을 천천히 음미해 가며 마실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담을 나누며 친화를 다지고 격조 높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장점이다.

대개 친교나 주요 거래를 할 경우엔 술을 마시고, 바쁜 사무용 대화 시에는 커피를 마신다. 반면 차는 한가한 때 주로 격에 맞는 적당한 상대와 함께 마신다. 따라서 시간적, 정서적 여유 속에서 상대를 접대할 수 있으며 이해타산을 떠나 유익한 시간을 즐기게 된다.

집에서 차를 대접할 때는 차를 끓이는 데서부터 함께 마시고 나서 손님을 배웅하기까지 전 과정이 한결같아야 한다. 일본의 다도와 달리 한국에서는 특정한 격식을 강요하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가운데 스스로 격을 갖추고 상대에 대한 공경심이 분위기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한국의 음다 문화이다. 지나친 격식을 삼가는 것 역시 상대에 대한 배려의 일환으로 자연스러운 담소를 위해서이다. 이는 곧 형식에 치우쳐 자칫 내용에 소홀하기 쉬운 우려를 경계하는 사려 깊은 지혜를 엿볼 수 있게 한다.²²⁾ 그러나 차를 끓일 때는 한약을 달이듯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차 문화 속에 상대에 대한 정성과 배려가 깃들어 있음을 뜻한다.

22) 허백련은 찻 자리에서 진정 원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열어 진실한 마음을 나누고자 함이었다. 일정한 형식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때와 장소, 상대에 맞춰 우리는 허백련의 행다례는 검순과 배려가 빛난 누구나 편안한 찻 자리였다. 정은희(2015), 「의제 허백련의 차 생활에서 찾은 정신과 교훈」, 韓國茶文化, 제6집, p.134.

Ⅲ. 학습자 유형별 차 문화교육

차 문화 교육은 학교 교육의 실천적 연장선상에서 제 2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결혼 이주 목적 학습자는 가정에서, 직업 목적 학습자는 직장에서, 학문 목적 학습자는 동아리를 결성해 차 문화의 일상화를 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새로운 여건 조성이 주요 과제다.

결혼 이주 학습자가 가정에서 차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차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정성 들여 티타임을 마련해도 가족이 응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직업 목적 학습자는 사주의 배려가 관건이다. 사주는 차를 마시는 잠시의 휴식 시간이 피고용인들의 복지를 위한 배려인 한편, 작업 능률 향상과 직결되는 생산적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쳐야 한다. 노동자들도 사주의 일방적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장 내 차 문화 도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그 실천을 위해 동료들과 뜻을 모아야 한다.

학문 목적 학습자는 결혼 이주 목적 학습자나 직업 목적 학습자에 비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대로 차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차와 차 문화의 내재적 가치와 강점을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녹여 낼 수 있어야 한다.

1. 결혼 이주 목적 학습자와 한국 차 문화 교육

1.1. 결혼 이주 목적 학습자의 사회 문화적 현실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으로 이룬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이주민 가정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국제결혼에 의한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제결혼의 경우 일부는 경제 문화적으로 윤택한 서구인 남여와 한국인 남녀가 결합한 이들도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으로 통칭되는 대부분은 경제,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나라의 여성과, 국내결혼의 기회를 놓친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은 사전 교제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만큼 서로에 대한 정보나 신상,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운명체를 이루게 된다. 서로의 문화 차이는 접어 두고라도 당장의 언어 소통조차 막연한 상황에서 사랑보다도 피차의 상황논리에 따른 의무적 동거를 시작하는 것이다.

결혼이주가족들은 대개 부부간의 미진한 언어소통, 문화적 이질감, 주변과의 부조화 등에서 야기되는 콤플렉스와 정서불안을 안고 있다. 그런데 이들 부부 사이에서 자녀라는 공동의 끈이 태어나 비로소 가정이 그 구조를 보다 끈끈히 다지게 된다. 여기서 자녀들은 부모의 부부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이어주는 완충적 담보 역할을 하게 된다. 불안과 갈등 요소를 안고 살아가는 부모에게 불가피한 운명적 인내를 강요하는 절충적 존재로 기능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가정환경에 숙명적으로 떠안기게 된 자녀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선천적으로 부모의 콤플렉스와 정서불안을 세습하기 쉽다.

어머니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이질감, 어머니의 어눌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몰이해, 이에 대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그 농도는 짙어진다. 이처럼 결혼이주학습자의 가정은 학습자뿐 아니라 남편과 자식 등 가족 전체가 정서 불안과 사회문화적 장애 요인들을 뇌관처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결혼 이주 목적 학습자를 위한 차 문화 교육

이들에게는 가족 간의 유대와 공감대를 강화할 시간과 효과적 실행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영국의 가정에서는 일찍이 가족끼리의 티타임²³⁾을

23) 해가 무척 짧아진 가을과 겨울의 밤이나 비바람이 불고 안개가 자욱한 날 저녁이면 응접실에 모여, 난로를 켜고 차를 마시며 몸을 녹인다. 동면의 시간이라 일컬어지는 저녁이 긴 날이 많아서인지 영국은 저녁식사 후의 티타임을 가장 먼저 관습화했다. 중산층 가정에서 즐기는 저녁식사 후의 티타임은 차를 마시며 하루 동안 지낸 이야기를 하거나, 카드게임, 바느질, 독서 등을 하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었다.

정은희(2015), 『한국과 영국의 차 문화 연구』, 학연문화사, p.260.

통해 가정의 명량한 분위기를 복돋우고 아이들의 정서를 순화하는 차 문화를 일상화 해왔다.²⁴⁾ 한국에서도 차를 마시는 시간을 활용해 사찰에서는 수행 정진의 고삐를 다잡는가 하면, 민가에서는 마음을 다독이고 이웃과의 친화를 다져왔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차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정신건강을 돕는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수한 차 애호가들이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 차는 혼자 마실 때는 머리를 맑게 해주고 번뇌를 씻어주며 사고력을 증진시켜 준다. 함께 마실 때는 격조 있는 담소로 사리 분별을 밝히고, 친화를 다져 사회적 분위기 쇄신에 기여한다. 또한 음다(飲茶)와 행다(行茶)의 기본자세인 상대에 대한 성실과 공경, 배려심을 길러준다. 이는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 줄 뿐 아니라 자신의 품격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인격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다문화 가정에서도 가족이 한 데 어울려 차를 마시며 한국의 차 문화를 익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 정서적 안정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고유의 한국 전통 정신문화를 익히는 산교육에 해당한다. 또한 학습자가 직접 차를 마시며 스스로 심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유용한 체험학습이기도 하다.

2. 직업 목적 학습자와 차 문화 교육

2.1. 직업 목적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현실

직업목적학습자는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한시적으로 입국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특수목적학습자 중에서도

24) 영국의 상류층 어린이들이 보낸 어린 시절은 보편적으로 유아시절을 기분 좋게 회상하며 보육실의 티타임을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를 보면 차에 관한 내용이 많다. 귀족계급의 어린이도 차 생활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랑의 마음을 키울 수 있었다.

전정애(2013), 「영국 빅토리아 시대 노동계급의 차문화 연구」, 원광대학교 교박사학위논문, p.73.

가장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문목적 학습자는 다른 부담 없이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면 된다. 결혼이주학습자는 문화와 언어적 불편 속에서도 가정이라는 안식처와 가족이라는 의지처가 있다.

그러나 직업목적 학습자는 생소한 직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며 동료들과의 어울림에 신경을 써야 한다. 언어 부분에서도 학문목적학습자는 한국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상당 수준 갖추어진 터이며, 결혼이주학습자는 한국인 가족과의 일상적 대화를 통해 수시로 한국어를 익힐 수 있지만 직업목적학습자는 모국어에 익숙한 편인 중국 동포를 제외하고는 직장에서의 짬짜미 대화에 의지할 뿐이다. 그들에게 노동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반복되는 노역에 가깝다. 거듭되는 스트레스는 만성적 정서 불안을 부르기 쉽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서와 문화적 배려는 당사자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서도 심각한 당면 과제이다.

2.2. 직업 목적 학습자를 위한 차 문화 교육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직업목적 학습자들에게 일과 중 잠시나마 동료와 함께 차 마시는 시간을 마련해 한국의 차 문화를 익히게 한다면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일찍이 영국에서는 차를 매개로 노동자의 권익을 일깨우는 문화를 일구었다. 왕실과 귀족 사회에서 시작된 차를 처음에는 노동자들은 마실 수 없었다. 그러나 차츰 차의 가격이 안정되고 차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노동자들도 차를 즐기게 되었다. 노동자들에게도 차를 마시며 잠시의 휴식을 통해 안정과 소통을 다지는 티타임을 제공한 결과 놀라운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²⁵⁾ 이후부터였다.

노동자들은 한 잔의 차가 곁들여진 휴식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고 새로운 기운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잠시 동안이지만 노동자들이 한 잔의 차를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의 의미와

25) 농장주와 공장주들은 건강하고, 성실한 노동자가 절실했다. 절실한 마음은 곧 차 휴식시간(tea break)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낳았고, 이는 곧 작업장에서 실행되었다. 작업 중간에 차를 마시며 잠시 쉬는 시간이 관행이 되자 작업장에서의 실수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작업장에서 티타임을 실행해 작업능률이 확실히 향상을 보이자, 많은 작업장에서 차 휴식시간이 이루어졌다.

정은희, 앞의 책, p.267.

효과는 지대했다. 티타임은 그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촉진제 역할을 했으며 곧장 작업 능률 향상이라는 성취감으로 직결될 수 있었다.

직업목적 학습자에게는 원활한 의사소통, 동료와의 화합이 최우선 과제다. 여기에 정서적 안정이 기본 과제로 주어진다. 그런데 차를 마시는 시간적 여유를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의사소통과 동료 간의 화합을 다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보다 즐겁게 업무에 집중하게 되고, 생산성을 높여 직장의 분위기도 한결 밝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3. 학문 목적 학습자와 한국 차 문화 교육

3.1. 학문 목적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현실

학문 목적 학습자는 한국어보다 한국의 사상과 문화, 학문 분야에 대해 학구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단순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 습득이 목적인 일반목적 학습자와는 달리 더 높고 깊은 수준의 본격적 학문을 지향하는 것이다. 또한 직업목적 학습자나 결혼이주 학습자 등 다른 특수목적 학습자가 일상의 생존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보다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순수한 한국의 학문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접근도 단순한 언어와 문화 학습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층적 지식 배양과 문화적 교감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점은 학문목적 학습자에게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수업에서 한국어와 함께 두 트랙을 이루는 한국문화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켜 준다. 한국의 학문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 텍스트 역할을 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학문의 배경과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3.2.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차 문화 교육

한국의 고차원적 정신문화에 속하는 차 문화는 학문목적 학습자에게 중요한 연구 주제 혹은 보조 자료일 수 있다. 차 문화 속에는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견인하는 고도의 정신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차가 지닌 고유의 특성은 학문목적 학습자의 학습과 연구를 돕는 약리적 기능을 할 수 있다.

다산은 다신계(茶信契)²⁶⁾를 조직해 제자들에게 차를 통해 인격을 도야하는 한편 학문을 익히고 우의를 다지기를 적극 권장한다. 그에 앞서 다산과 초의, 혜장, 추사는 차를 통해 학문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우의를 돈독히 한 바 있다. 이는 학문목적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연마와 교우와의 화합을 통한 학습 분위기 조성에 한국의 차와 차 문화가 매력 있는 산 텍스트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국의 차와 차 문화는 학문목적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생산적 방향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차 문화가 지닌 특성과 잠재적 가치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널리 알려 그 실질적 효과를 거두게 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대부분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생소한 환경과 문화, 낯선 동료, 언어 소통의 미흡, 불안정한 생계 대책 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 요소를 겹겹이 안고 있다. 이들에게 문화 충격 완화, 정서 안정,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위한 명량한 분위기 조성은 절실하고 시급한 당면 과제다. 특히 일반 목적 학습자와 달리 한국어와 한국 문화 습득은 일시적 과정일 뿐, 정착 이루어야 할 목적을 따로 지닌 특수목적 학습자들은 심리적 압박감이 더 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해 본연구가 제시한 한국의 차 문화 교육 방안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 될 만큼 참신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심층적 문화 교육과 더불어 정신 건강의 향상, 다담과 친화를 통한 명량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선가의 다도에 연원을 둔 한국의 차 문화는 개인적으로는 심신의 안정

26) 위의 책, p.111.

과 정서 순화, 정신의 건강, 집중력 강화 등을 꾀할 수 있다. 나아가 들 혹은 여럿이서 함께 차를 마시는 경우에는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러운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진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보조를 함께하는 한국 문화교육 측면에서도 일상의 문화와 전통 문화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차 문화는 효과적 텍스트이자 주제일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정신과 사상, 정서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한국의 차 문화는 한국정신문화의 핵심이기도하다. 이 부분은 특히 한국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할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유익한 학구적 자료를 제공한다. 이들은 전통 차 문화를 통해 보다 밀도 깊게 한국의 전통적 정신문화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직접 차를 빚어 함께 나누며 익히게 될 차 문화 교육은 현장 체험학습과 같은 생생한 문화교육으로, 이론과 실체를 효율적으로 병합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차 문화 교육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장르로 기능할 뿐 아니라 교사와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해 문화의 실상을 직접 시연하는 실용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 차와 차 문화교육이 거두게 될 예상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차 문화를 한국문화교육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해 외국인 학습자 한국문화교육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 학습자들은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적 여유 속에서 동료와의 화합을 다지고 자연스럽게 원활한 의사소통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의 차 문화를 이해하고 차를 상용함으로써 정서 순화와 정신 건강을 꾀할 수 있다.

넷째,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의 우수한 정신문화인 차 문화를 익히고 자국에 전파함으로써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차 문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져온 전통적 정신문화 유산임을 부인할 수 없고 기대 이상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본 논고에서는 차 문화교육의 가치 제고만을 한정지어 살피는 데 그쳤다. 한국의 차 문화가 한국문화교육으로써의 가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한국문화교육의 텍스트로 활용

한다면, 이에 따르는 현실적인 교육 목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또 연구하면서 실질적인 교육방안을 제안해야 하는 후속 연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우수한 정신문화를 세계적 자산으로 확장하고자하는 본 논자의 숙제이자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의 과제이기도 하다.

【Abstract】

Park Kyung-ja. 2021. Korean cultural education for foreign learners-Focusing on Korean tea culture.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4: 55-73. The main Study intends to present tea culture as part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is because foreign learners can make their own tea and chat, strengthening emotional stability and friendship, while also learning vivid Korean culture and language culture. Tea culture is adopted and applied as a living text, theme, means, and supplementary material for Korean culture education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effects of cars that stabilize the mind and body and boost energy have been shared by East and West for many years. In particular, tea, which is good for mental health, is known to have a ambivalent effect that purifies the mind in a clear and calm manner and awakens the chaotic spirit. When people drink tea alone, the old people have been able to straighten their minds by removing their thoughts and anguish. When two or several people drink, they're in harmony.

In Korea, foreign learners are experiencing emotional instability and stress in many ways, including language, culture, living environment, friendship, and livelihood measures. Tea culture education, which they will make their own tea and share it with, is equivalent to living cultural education such as field experience learning. Practical effects of not only functioning as a genre that introduces Korean culture, but also teachers and learners participate in demonstrating the reality of culture directly.

Key word: Korean culture, Korean culture education, Korean tea culture, foreign learners, tea ceremony education

참고문헌

저서

- 권태원, 『우리의 차문화와 茶禮』, 경인문화사, 2001.
김운학, 『한국의 차문화』, 이른 아침, 2004.
김태경, 『한국차문화사』, 학문사, 2006.
박정희, 『한국 차문화의 역사』, 민속원, 2015.
법정스님, 『텃빈 충만』, 샘터, 2001.
다산서당 편집실 엮음, 『다산 정약용』, 다산서당, 2004.
석용운, 『한국 다예』, 도서출판 초의, 2000.
신광수, 『우리茶 이야기』, 해안, 2014.
여 연,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 현암사, 2006.
이귀례, 『한국의 차문화』, 열화당, 2002.
이기윤, 『한국의 차문화』, 남양문화, 2008.
정병만, 『다시 보는 차문화』, 푸른길, 2012.
정은희, 『한국과 영국의 차 문화 연구』, 학연문화사, 2015.
———, 『의제 허백련의 차 생활에서 찾은 정신과 교훈』, 韓國茶文化, 제6집, 2015.
최계원, 『우리 차의 재조명』, 삼양인쇄, 1983.
채정복, 『근현대 한국 차문화를 중흥시킨 초의와 효당』, 효당사상연구회, 2006.
최범술, 『한국의 다도』, 보련각, 1975.

논문

- 공귀옥, 「차 생활이 청소년의 심리변화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동률, 「초의의 사이와 선 의식」, 숭실어문 19집, 숭실어문학회, 2003.
김방룡, 「禪僧들의 차문화에 대한 一考」, 『한국선학』 제21집, 2008.

- 김태경, 「연고차 다례 복원 연구」, 한국차학회지, 제 13권 1호, 2009.
- 박경자, 「韓國 茶道에 內在된 中庸의 實踐性 研究」, 동북아문화연구 제 57집,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18.
- 유우준, 「18세기 영국의 차 산업과 사회 변화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경희, 「한국 차문화 전승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영애, 「의제 허백련의 차정신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진희, 「차 치료의 역할과 적용에 관한 문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혜자, 「한국 불교의 다례, 한국 차학회지」, 7권 1호, 한국차학회, 2001.
- 전정애, 「영국 빅토리아 시대 노동계급의 차문화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정은희, 「의제 허백련의 차생활에서 찾은 정신과 교훈」, 『韓國茶文化』, 제6집, 韓國茶文化學會, 2015.
- 조기정·유동훈, 「차문화의 범주와 가치」, 『韓國茶文化』 제6집, 韓國茶文化學會, 2015.

<필자 소개>

이름: 박경자

소속: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전자우편: luvpoem@hanmail.net

접수일자: 2021. 01. 22.

심사일자: 2021. 01. 25.

게재확정일자: 2021. 01. 31.